

# 국내 FP(Financial Planner)를 대상으로 한 가계재무지표값 조사

상명대 교수 양세정, 석사과정 정지영

## I. 연구배경 및 목적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무상태의 평가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절한지, 어떤 부분이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비교를 할 준거점이 필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소비수준이 과하지는 않은지, 자산에서 부동산비율이 과한 것은 아닌지, 보장성보험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적절한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후자금의 적절한지, 부동산구매를 위해서 대출을 더 해도 될지 등 다양하다. 개인 재무설계는 매순간 관련 의사결정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재무지표값들의 준거기준에 대한 제시가 절실하다. 그러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들은 미흡하다. 자산관리의 실무적인 측면에서 연구결과들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영역의 학자들은 흥미를 가지지 않아왔다. 예상할 수 있는 이유로 개인재무관리에 대한 연구의 역사가 길지 않다는 것이고, 또한 이론에 근거한 객관적인 방법을 통한 수치 도출이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재무지표 값의 기준점을 제공한 연구로는 노후자금을 산출한 일부 연구가 있을 뿐이다(이선형, 2000). 노후자금에 대한 대다수 연구들은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은퇴 이후 필요한 노후자금의 전체값이라기 보다는 자산의 증가를 중심으로 한 노후자금의 적정이자율이나, 노후자금의 적정성, 현재 가계 가운데 노후자금의 준비가 충분한지의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30~40대의 중산층 가계를 분석한 여윤경의 연구에 의하면 거주주택의 자산가치를 제외했을 때 약 46%의 가계가 노후자금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윤경, 2005). 적정한 노후자금의 수준을 연구한 연구들을 보면 현재 은퇴자 계층의 소비수준은 은퇴 전의 83%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석재은, 2003), 전승훈(2005)은 은퇴자가 은퇴 전의 소비수준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은퇴 후 소비는 은퇴전의 소비의 100%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기도 하였다.

재무지표 값의 기준점에 관한 이론적 체계를 갖춘 연구들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설계의 실무에서는 적정노후자금 및 관련정보들에 대해 언급되어져 왔다.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재무설계관련 프로그램들에도 노후자금계산이나 소비지출적정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노후필요자금이 7억 원이라거나, 최소 30억은 되어야 부자라고 볼 수 있다거나 하는 지표값을 종종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값들은 명확한 근거나

출처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언론에서 종종 제시되는 이러한 노후자금의 크기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고 실제로는 4억-5억 정도이면 충분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이철용, 2006).

재무지표 값 가운데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된 분야는 재무비율 관련 연구이다. 최현자 외(2003)의 연구가 우리나라 자료에 근거한 각종 재무비율을 산출,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재무비율 산출방법을 보완하거나 가계재무 준거기준을 산출한 관련 실증연구들이 이어져 왔다(허경옥, 2005). 노후필요자금 등과 마찬가지로 실무 현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재무 지표 값들이 제시되고 사용되어져 왔다. 실제로 가계의 적정 보험가입수준은 월수입의 12%라던가 또는 적정 투자자산의 비중을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수치라는 나이의 법칙 등의 기준은 실제로 재무설계 시 자주 이용되고 있다.

최초로 우리나라 가계를 대상으로 한 적정재무비율값을 제안한 최현자 외(2003)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재무비율과 소비자의 주관적 재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재무만족도가 급격히 변화되는 재무비율 지점을 찾아냄으로써 재무비율의 가이드라인 값을 도출한 바 있다. 후에 김민정과 최현자(2007)의 연구에서는 다른 가계자료를 이용하여 2003년 당시 제안하였던 재무비율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도 하였다.

금융환경과 가계의 재정상태는 매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설계방법 및 재무설계를 위한 재무지표 또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현자 외(2003)의 연구에서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듯이 재무설계 전문가들에게 경험에 근거한 재무지표의 관련 준거점 수치를 물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앞서 연구에서 산출된 값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시대상황에 따른 재무지표의 수정, 보완을 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재무설계전문회사에서 개인재무상담을 하는 Financial Planner(이후 FP)를 대상으로 각 재무지표 값의 준거점을 조사하고자 한다. 재무지표에는 재무비율 외 노후준비 자금규모, 노후자금 대체율, 최소/표준/유락 생활비의 수준 및 개인재무설계를 위한 적합한 자격증 등 다양한 값을 포함하였다. 개인을 대상으로 재무설계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의 재무지표에 대한 값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나온 결과이다. 이들의 경험적 기준을 통한 견해를 모아 객관적인 수치로 종합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는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2009년 6월 993호 이코노미스트에 게재된 425명의 FP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6개의 은행, 6개의 증권사, 4개의 보험사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들로 우선 이메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메일 회신 또는 팩스 회신을 기대하였다. 이들 외 접촉이 가능한 은행 및 증권회사 FP와 개인재무설계회사의 FP들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FP들의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조사와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조사를 혼용하여 설문지조사를 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약 600부 정도를 각 개인의 이메일 또는 직접배포를 하였으며 그동안 이직을 했거나 또는 응답을 회피하는 경우를 빼고 229개를 회수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한 답들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189개의 설문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 2.2 자료분석

재무설계 지표값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재무지표별로 산술평균값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등을 제시하며, 필요에 따라 소속금융기관유형(은행권, 증권회사, 보험회사, 전문재무설계회사)별 분석, 보유자격증별 분석, FP경력별 분석결과를 더하였다. 이를 위하여 SPSS 15.0을 사용하였다.

## 2.3 조사 지표

### <일반 재무지표>

조사대상 재무지표는 최현자 외(2003)의 연구에서 산출하였던 재무비율을 기본으로 한다. 그들은 총11개 지표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의 지표는 월평균저축액/월평균가계소득과 유사하여 제외하였고,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과 개념적 차이를 설문에서 얻어내기 힘들 수 있는 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지표와 실물자산/총자산과 개념적으로 중첩되는 의미를 가진 금융자산/총자산의 지표를 제외하여 총 9개 지표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1> 일반재무지표 개념 및 준거기준

| 재무비율     |                                        | 준거기준  | 개념                                           |
|----------|----------------------------------------|-------|----------------------------------------------|
| 지출비율     | $\frac{\text{월평균생활비}}{\text{월평균가계소득}}$ | < 90% | 월생활비는 월가계소득의 몇 %를 넘지 않아야 하는가                 |
| 위험대비 비율  | $\frac{\text{월평균보험료}}{\text{월평균가계소득}}$ | < 20% | 보장성 보험료(연금 및 저축성 제외)는 월 소득대비 몇 %를 넘지 않아야 하는가 |
| 현금유동성 비율 | $\frac{\text{금융자산}}{\text{월평균가계소득}}$   | 1배초과  |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은 월 소득금액의 몇 배가 적정한가             |
| 저축비율     | $\frac{\text{월평균저축액}}{\text{월평균가계소득}}$ | < 10% | 월저축액(적금 및 펀드 비중)은 월 소득 대비 몇 %가 적정한가          |

|         |                                          |        |                                  |
|---------|------------------------------------------|--------|----------------------------------|
| 부채비율    | $\frac{\text{월평균부채상환액}}{\text{월평균가계소득}}$ | < 25%  | 대출이자의 월상환액은 월소득의 몇 %를 넘지 않아야 하는가 |
|         | $\frac{\text{총부채}}{\text{총자산}}$          | < 80%  | 총부채는 총자산의 몇 %를 넘지 않아야 하는가        |
|         | $\frac{\text{총부채}}{\text{금융자산}}$         | 10배 미만 | 총부채는 금융자산의 몇 배를 넘지 않아야 하는가       |
| 실물자산 비율 | $\frac{\text{실물자산}}{\text{총자산}}$         | < 90%  | 실물자산은 총자산의 몇 %가 적절한가             |
| 투자자산 비율 | $\frac{\text{투자자산}}{\text{총자산}}$         | 5%~10% | 투자자산은 총자산의 몇 %가 적절한가             |

#### <은퇴관련 지표>

<표 2> 은퇴관련 지표 질문내용

|                                                                            |
|----------------------------------------------------------------------------|
| 1. 은퇴 생활비는 현재 가치로 매월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2. 은퇴 후 생활비로 은퇴 전의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3. 은퇴를 대비한 저축의 비중은 월 소득의 몇 %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4. 은퇴시점에 필요한 은퇴생활비의 총 금액은 현재 가치로 약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60세에 은퇴하고 85세까지 사실 경우) |
| 5. 은퇴준비는 몇 살 때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기타 지표>

그 외 재무설계 관련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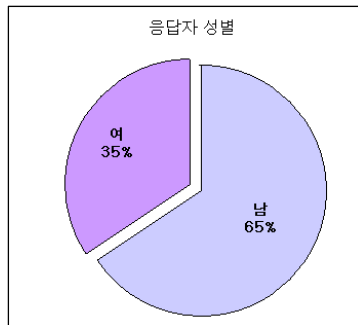
<표 3> 기타 재무설계관련 지표 질문내용

|                                         |
|-----------------------------------------|
| FP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부전공으로 적합한 것은?           |
| 현존하는 금융관련 자격증 중 대학생들이 취득하도록 권장하고 싶은 것은? |
| FP 업무에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자격증은?              |
| 개인재무설계 비용에 대한 적절한 방법과 그 액수 또는 비율은?      |
| 월평균 계층별 생계비의 기준은?                       |
| 1억 자산의 Portfolio는?                      |
| FP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
| FP를 하기에 적합한 연령대는?                       |
| FP 업무관련 정보를 얻는 방법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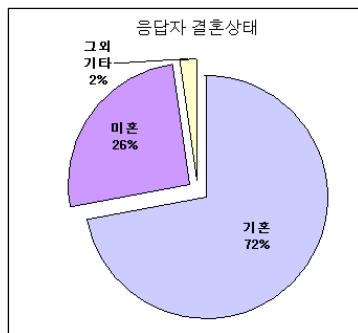
### III. 분석결과 및 해석

####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성별과 결혼여부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중 1명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기본분석은 총 189명 중 188명에 대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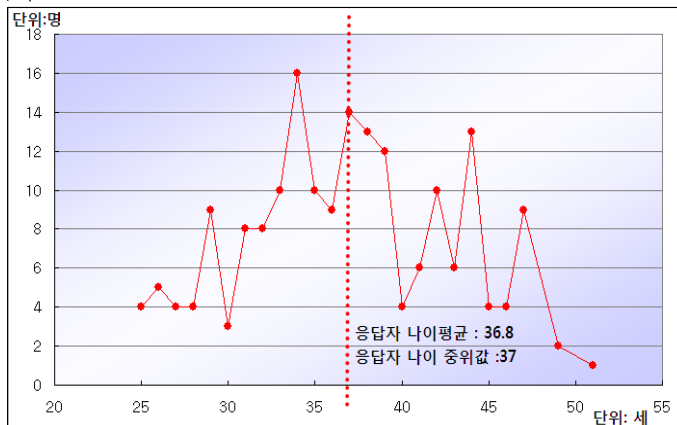
| 성별 | 명 (%)       |
|----|-------------|
| 남자 | 123명 (65%)  |
| 여자 | 65명 (35%)   |
| 계  | 188명 (100%) |



| 결혼상태   | 명 (%)       |
|--------|-------------|
| 기혼     | 135명 (72%)  |
| 미혼     | 49명 (26%)   |
| 그 외 기타 | 4명 (2%)     |
| 계      | 188명 (100%) |

<그림 1> 조사대상자 성별 및 결혼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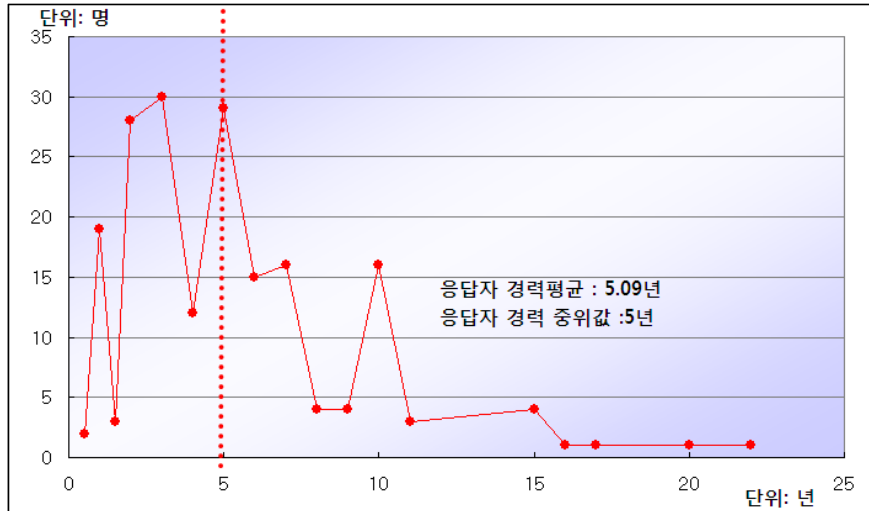
조사대상자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30%정도 더 많았으며, 72%가 기혼자였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약 36.8세였으며, 35~39세 사이가 30.9%로 가장 많았으며, 대다수가 30대에서 40대였다.



| 구 분     | 응답자 수 (%)    |
|---------|--------------|
| 25세~29세 | 26명 (13.8%)  |
| 30세~34세 | 45명 (23.9%)  |
| 35세~39세 | 58명 (30.9%)  |
| 40세~44세 | 39명 (20.7%)  |
| 45세~49세 | 19명 (10.1%)  |
| 50세~54세 | 1명 (0.5%)    |
| 총 합     | 188명(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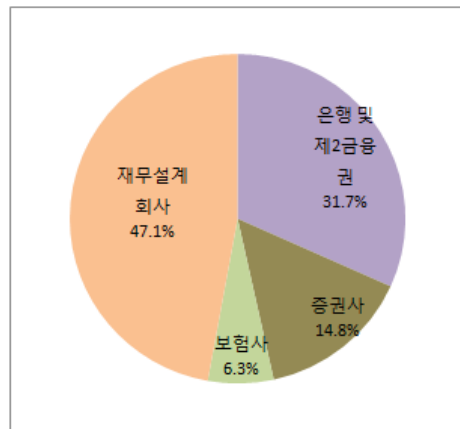
<그림 2> 응답자 나이 분포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경력은 약5년 정도이며, 대다수가 10년 이내의 경력이었다. 나이와 경력에 따라 유추하였을 때 최소 20대 후반에서 30대에 재무설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림 3> 응답자 경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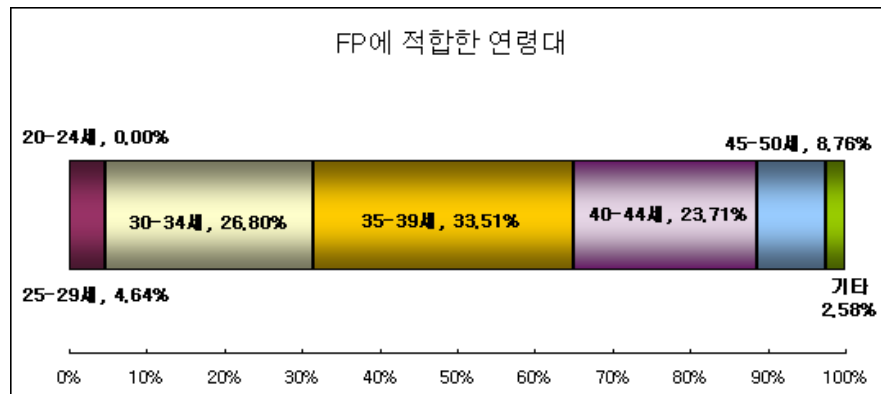
응답 전문가들의 직종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은행권이 32% 증권사가 15% 보험사가 6%이며 그 외 대리점이 47%로 보험업과 관련된 직종이 53%임을 알 수 있었다.



| 업무형태    | 명(%)         |
|---------|--------------|
| 은행권     | 60명(31.7%)   |
| 증권사     | 28명(14.8%)   |
| 보험사     | 12명 (6.3%)   |
| 재무설계 회사 | 89명(47.1%)   |
| 계       | 189명(100.0%) |

<그림 4> 응답자의 업종 분포

재무설계를 하기에 적합한 연령대에 대한 응답으로는 30대가 60.31%로 가장 적절한 연령대로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33.51%인 가장 많은 응답자가 35~39살이 가장 적합하다고 답하였다. 이는 FP의 역할의 특성상 빠른 정보수집 등도 필요하지만 그 외의 경험 및 신뢰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5> FP에 적합한 연령대

### 3.2 재무비율 결과

재무비율 9가지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최현자 외(2003)의 준거기준에 비해,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보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기준값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비율에 있어서 기존 준거기준보다 약 3배 높은 기준값을 제시함으로써 전문가들은 보다 많은 저축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투자자산의 비중은 2003년의 준거기준에 비해 훨씬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짧은 기간동안의 투자시장 확대를 감안할 때 받아들일 만한 수치로 보여진다.

재무설계현장에서 언급되는 월 평균보험료의 비율이 월소득의 12% 정도여야 한다는 통념이 그대로 조사결과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실물자산의 이상적인 비중은 57.50%로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융자산의 비중을 제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 총부채/총자산, 실물자산/총자산 등 세 개의 재무비율의 경우 높은 표준편차와 함께 전문가들의 답변의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항목의 기준값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표 4> FP들이 제안한 재무비율 지표

| 재무비율                 |                         | 준거기준   | 최소값  | 중앙값 | 최대값  | 평균값    | 표준편차  |
|----------------------|-------------------------|--------|------|-----|------|--------|-------|
| <u>지출비율</u>          | 월평균생활비<br>월평균가계소득       | < 90%  | 15%  | 60% | 100% | 56.74% | 17.31 |
| <u>위험대비<br/>비율</u>   | 월평균보험료<br>월평균가계소득       | < 20%  | 5%   | 10% | 30%  | 12.75% | 5.05  |
| <u>현금유동<br/>성 비율</u> | 금융자산<br>월평균가계소득         | 1배초과   | 0.5배 | 3배  | 30배  | 4.02배  | 3.57  |
| <u>저축비율</u>          | 저축액<br>월평균가계소득          | < 10%  | 9%   | 30% | 80%  | 29.87% | 12.93 |
| <u>부채비율</u>          | 월평균부채상환<br>액<br>월평균가계소득 | < 25%  | 5%   | 20% | 40%  | 20.26% | 7.77  |
| <u>부채비율</u>          | 총부채<br>총자산              | < 80%  | 10%  | 50% | 100% | 48.20% | 18.21 |
|                      | 총부채<br>금융자산             | 10배 미만 | 0.5배 | 3배  | 30배  | 4.67배  | 3.57  |
| <u>실물자산<br/>비율</u>   | 실물자산<br>총자산             | < 90%  | 10%  | 60% | 90%  | 57.50% | 19.49 |
| <u>투자자산<br/>비율</u>   | 투자자산<br>총자산             | 5%~10% | 5%   | 20% | 70%  | 23.22% | 13.32 |

FP들의 직종별로 각 재무비율에 대한 비교를 한 것은 <표 5>와 같다. 각 직종별 평균과 전체평균값은 거의 비슷하였으나, 항목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보였다. 지출비율에 있어서는 67.68%로 증권사 종사자가 다른 직종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저축비율에 대한 준거값은 재무설계회사 종사자가 33.66%로 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증권사 종사자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보다 소비지향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채비율에 대한 준거기준에 대해서 보험회사 종사자가 가장 높은 부채비율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자산에 대한 비중은 가장 낮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투자자산의 비율에 대한 기준값은 증권사 종사자보다 재무설계회사 종사자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치를 제안하였다.

<표 5> FP들이 제안한 재무비율의 직종별 비교

| 재무비율                 |                         | 준거기준      | 은행권    | 증권     | 보험     | 재무설계<br>회사 | 전체<br>평균 | 4개사<br>평균 |
|----------------------|-------------------------|-----------|--------|--------|--------|------------|----------|-----------|
| <u>지출비율</u>          | 월평균생활비<br>월평균가계소득       | < 90%     | 56.67% | 67.79% | 57.92% | 53.15%     | 56.74%   | 58.55%    |
| <u>위험대비<br/>비율</u>   | 월평균보험료<br>월평균가계소득       | < 20%     | 12.72% | 12.50% | 12.33% | 12.90%     | 12.75%   | 12.61%    |
| <u>현금유동<br/>성 비율</u> | 금융자산<br>월평균가계소득         | 1배초과      | 4.27배  | 4.02배  | 3.83배  | 3.87배      | 4.02배    | 4배        |
| <u>저축비율</u>          | 저축액<br>월평균가계소득          | < 10%     | 26.40% | 25.89% | 28.33% | 33.66%     | 29.87%   | 28.57%    |
| <u>부채비율</u>          | 월평균분채상환<br>액<br>월평균가계소득 | < 25%     | 20.72% | 18.39% | 21.25% | 20.40%     | 20.26%   | 20.19%    |
| <u>부채비율</u>          | 총부채<br>총자산              | < 80%     | 47.47% | 45.54% | 54.17% | 48.72%     | 48.20%   | 48.97%    |
|                      | 총부채<br>금융자산             | 10배<br>미만 | 4.47배  | 4.32배  | 4.63배  | 4.92배      | 4.67배    | 4.58배     |
| <u>실물자산<br/>비율</u>   | 실물자산<br>총자산             | < 90%     | 60.67% | 60.54% | 52.50% | 55.51%     | 57.50%   | 57.30%    |
| <u>투자자산<br/>비율</u>   | 투자자산<br>총자산             | 5%~10%    | 22.92% | 22.07% | 20.25% | 24.19%     | 23.22%   | 22.36%    |

자격증별 재무비율평가를 비교해보면 <표 6>과 같다. FP업무에 대한 보다 이론적 토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으로 FP관련 자격 소유자 집단과 상위의 FP관련 자격증인 CFP집단을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다. 결과에 의하면 특히 CFP자격 소유자의 경우 다른 FP자격소유자나 또는 전체평균과는 전반적으로 다른 결과가 보여진다.

지출비율은 평균보다 높아서 63.38%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저축비율은 25.15%로 평균인 29.87%에 비해 낮았다. 실물자산에 대한 비율과 총부채에 대한 비율은 평균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제안한 재무비율들은 전체평균치에 비해 최현자 외(2003년)의 준거기준에 가까운 쪽에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CFP 자격 소유자들이 대부분 개인재무설계 업무에 가장 전문적으로 자주 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내용을 좀 더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FP자격 소유자들 역시 비슷한 항목들에 있어서 평균값보다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보아 실제 현업의 반영이 좀 더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6> FP들이 제안한 재무비율의 보유자격증별 비교

| 재무비율                 |                     | 준거기준       | 전체<br>평균 | 4개사<br>평균 | FP 자격<br>소유자 | CFP 자격<br>소유자 |
|----------------------|---------------------|------------|----------|-----------|--------------|---------------|
| <u>지출비율</u>          | 월평균생활비<br>월평균가계소득   | < 90%      | 56.74%   | 58.55%    | 58.79%       | 63.38%        |
| <u>위험대비<br/>비율</u>   | 월평균보험료<br>월평균가계소득   | < 20%      | 12.75%   | 12.61%    | 12.97%       | 13.32%        |
| <u>현금유동<br/>성 비율</u> | 금융자산<br>월평균가계소득     | 1배초과       | 4.02배    | 4배        | 3.88배        | 3.62배         |
| <u>저축비율</u>          | 저축액<br>월평균가계소득      | < 10%      | 29.87%   | 28.57%    | 28.90%       | 25.15%        |
| <u>부채비율</u>          | 월평균부채상환액<br>월평균가계소득 | < 25%      | 20.26%   | 20.19%    | 20.94%       | 20.97%        |
| <u>부채비율</u>          | 총부채<br>총자산          | < 80%      | 48.20%   | 48.97%    | 48.20%       | 50.29%        |
|                      | 총부채<br>금융자산         | 10배<br>미만  | 4.67배    | 4.58배     | 4.93배        | 6.21배         |
| <u>실물자산<br/>비율</u>   | 실물자산<br>총자산         | < 90%      | 57.50%   | 57.30%    | 57.61%       | 61.18%        |
| <u>투자자산<br/>비율</u>   | 투자자산<br>총자산         | 5%~10<br>% | 23.22%   | 22.36%    | 22.86%       | 22.94%        |

### 3.3 은퇴생활비 관련 지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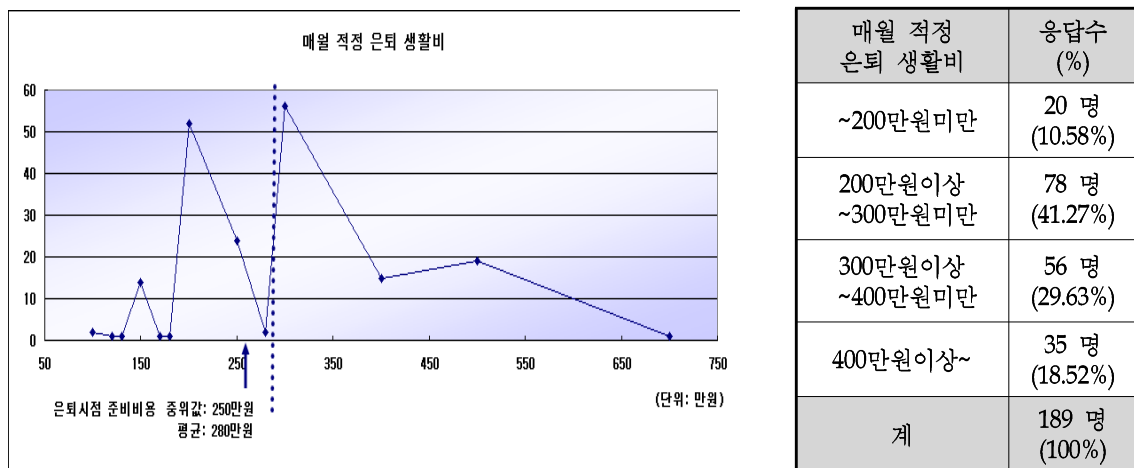
은퇴생활비 관련 지표값들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결과는 응답자 가운데 매월 은퇴 생활비로 잘못 답한 사람들과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16개의 설문지를 제외한 173개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7> 은퇴생활비 관련 지표의 직종별 비교

|                        | 은행권           | 증권사           | 보험사           | 재무설계<br>회사  | 전체 평균         | 4개사<br>평균     |
|------------------------|---------------|---------------|---------------|-------------|---------------|---------------|
| 매월 적정 은퇴<br>생활비        | 336만원         | 329만원         | 240만원         | 232만원       | 280만원         | 283만원         |
| 은퇴 후<br>생활비의 비율        | 64.50%        | 65.00%        | 65.42%        | 75.46%      | 69.79%        | 67.59%        |
| 은퇴 대비<br>월 저축 비중       | 22.42%        | 17.32%        | 21.67%        | 25.53%      | 23.08%        | 21.73%        |
| 은퇴시점에 필요한<br>은퇴비의 총 금액 | 9억<br>2,117만원 | 8억<br>9,884만원 | 8억<br>9,091만원 | 8억<br>756만원 | 8억<br>8,479만원 | 8억<br>7,962만원 |
| 은퇴준비 시작나이              | 34.8세         | 31.5세         | 27.9세         | 28.9세       | 31.1세         | 30.8세         |

전체평균은 4개사 평균과 비교하여 그 값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다. 매월 적정 은퇴생활비로 응답자들은 현재의 화폐가치로 약 280만원이 적절한 수준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사와 재무설계회사는 240만원, 232만원인 것에 반해, 은행권과 증권사의 경우에는 각기 336만원과 329만원으로 보험사와 재무설계회사에 비해 거의 10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적정 은퇴 생활비는 200만원~400만원까지라고 약 70%가 응답하였으며, 평균 약 28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였다.



<그림 6> 매월 적정 은퇴 생활비

또한 은퇴후 생활비를 은퇴전 생활비의 몇%가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65%정도가 적정하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나, 재무설계회사 종사자의 경우 75.46%로 타집단에 비해 높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은퇴소득대체율이 60%~85%로 나온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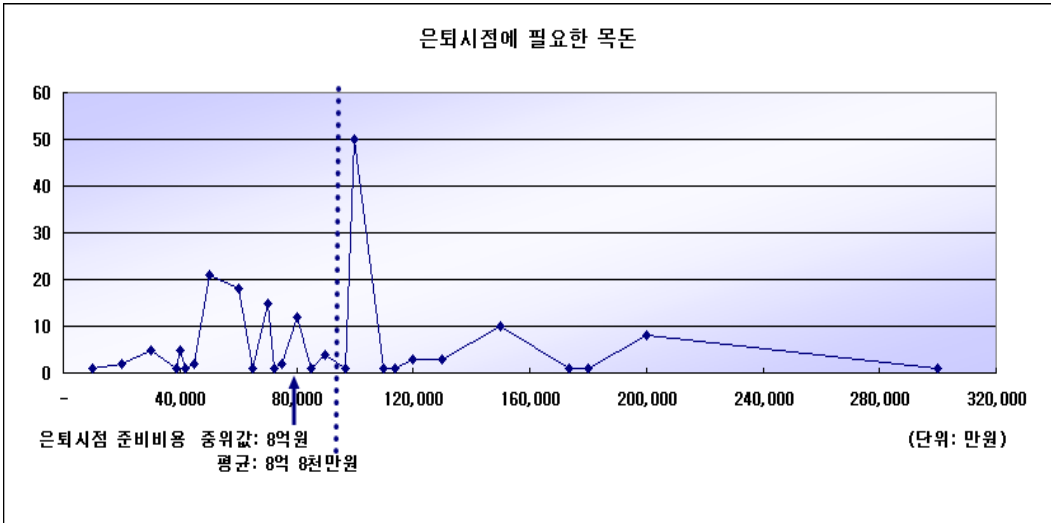
은퇴비의 총금액에 대한 계산 값에서는 질문 시에 우선 '60세 은퇴하고 85세까지 생존하길 경우를 가정'하고 응답을 받아 분석하였다. 실제 60세에 은퇴하고 85세까지 생존할 경우 현재 60세의 은퇴자가 필요한 일시금은 현재가치 280만원으로 생활하면서 3% 인플레이션과 은퇴자산 수익률을 5%로 가정하면 약 6억 7,300만원 정도가 산출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설문 분석 결과 은행이 가장 높게 9억 2,117만원의 평균이었으며 재무설계회사 종사자는 가장 낮은 8억 756만원으로 금액이 1억 1,500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은퇴비의 총금액이라는 정의가 '은퇴할 때 갖고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이 자산으로 표준생활비만큼을 사용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은퇴이후부터 생존 시까지 지출하는 총액'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혼용된 응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실제 은퇴시점에 필요한 목돈이라는 의미보다는 은퇴이후 사용하는 생활비의 인플

레이션을 반영한 총 액수로 다른 개념의 응답이 가능할 수 있었기에 높은 은퇴 총액이 계산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비에 대한 추산이 서로 다르게 될 수 있으므로 용어에 대한 명확한 명명과 정의가 내려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은퇴준비 시작나이에 대한 응답은 보험사와 재무설계회사 종사자들은 20대 후반으로 좀 더 일찍 은퇴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은행권 종사자의 경우 평균 34.8세로 보험사나 재무설계회사 종사자들 보다 6-7년 늦게 노후준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차이를 보였다.

은퇴시점에 필요한 목돈에 대한 전체 응답자들의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대 30억 까지 응답하였으나 실제 많은 응답이 10억임을 <그림 7>에서 볼 수 있다. 은퇴비의 총금액에 대한 응답자들의 금액구간별 결과를 보더라도 실제로 약 79%가 4억 ~ 12억 까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은퇴비의 총금액        | 응답수   | 비율       |
|-----------------|-------|----------|
| ~ 4억 미만         | 10 명  | 5.78 %   |
| 4억 이상 ~ 6억 미만   | 29 명  | 16.76 %  |
| 6억 이상 ~ 8억 미만   | 37 명  | 21.39 %  |
| 8억 이상 ~ 10억 미만  | 18 명  | 10.40 %  |
| 10억 이상 ~ 12억 미만 | 52 명  | 30.06 %  |
| 12억 이상 ~        | 27 명  | 15.61 %  |
| 계               | 173 명 | 100.00 % |

<그림 7> 은퇴시점에 필요한 목돈

그러나 FP 자격증(CFP, AFPK, IFP, 증권 FP, 은행 FP)을 소유한 113명만을 선별한 결과와 CFP 자격증을 소유한 34명의 결과와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는 FP 자격 소유자가 은퇴비용의 총 금액을 좀 더 높게 생각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CFP자격 소유자들은 매월 적정

은퇴생활비로 300만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게 제안했으나, 은퇴시점에 필요한 은퇴비로 8억 6,000만원을 제안함으로써 타집단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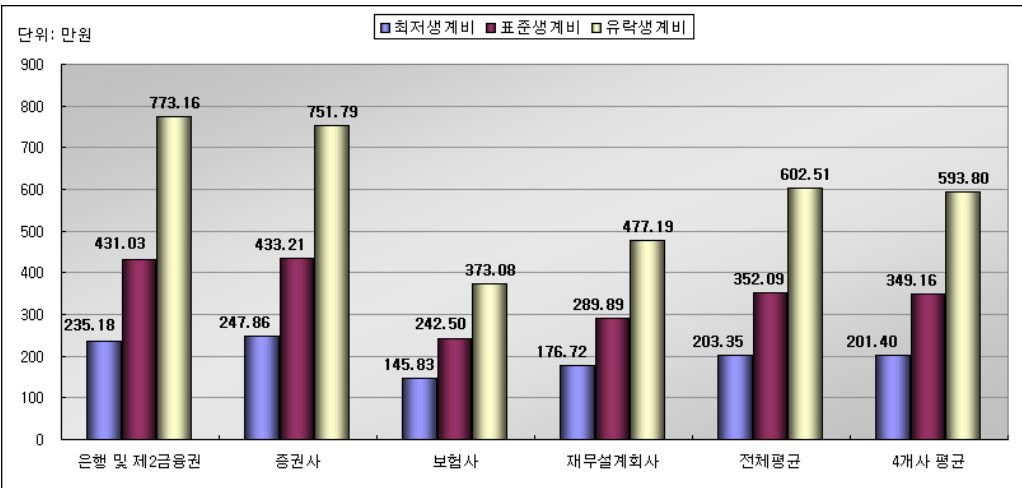
<표 8> 은퇴생활비 관련 지표의 보유자격증별 비교

|                     | 전체 평균      | 4개사 평균     | FP 자격<br>소유자  | CFP 자격<br>소유자 |
|---------------------|------------|------------|---------------|---------------|
| 매월 적정 은퇴 생활비        | 280만원      | 283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은퇴 후 생활비의 비율        | 69.79%     | 67.59%     | 71.60%        | 70.15%        |
| 은퇴대비 월 저축 비중        | 23.08%     | 21.73%     | 24.09%        | 22.50%        |
| 은퇴시점에 필요한 은퇴비의 총 금액 | 8억 8,479만원 | 8억 7,962만원 | 9억<br>2,950만원 | 8억 6,000만원    |
| 은퇴준비 시작나이           | 31.1세      | 30.8세      | 32.1세         | 31.5세         |

### 3.4 기타

#### <생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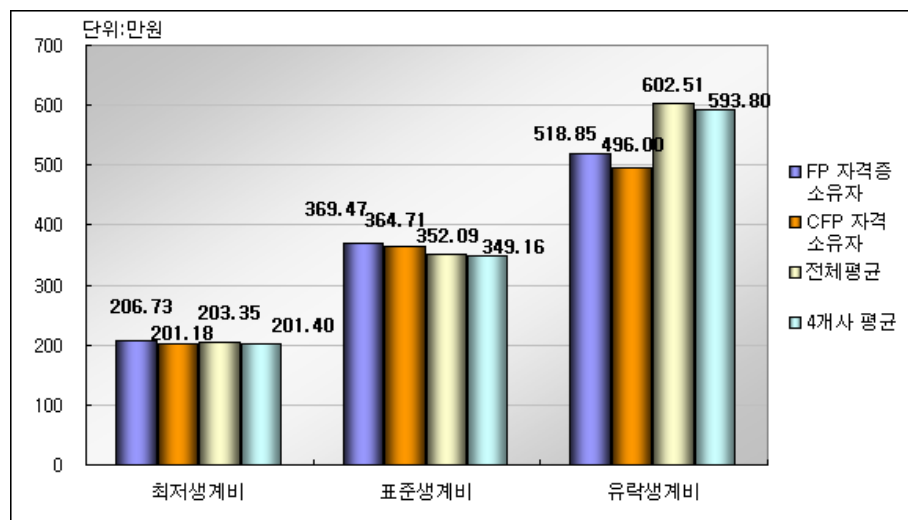
생계비 기준에 대한 결과는 <그림 8>과 같이 나타났다. 최저생계비와 유락생계비의 경우 평균값과 중위값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표준생계비에 대한 응답은 평균값이 좀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응답빈도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저생계비와 유락생계비는 평균값이 응답빈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나타났지만 표준생계비는 응답빈도가 200만원~500만원까지 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표준생계비라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어떤 하나의 금액에 일치되지 않고 그 의견이 서로 다양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 직종별로 제안한 최저생계비 표준생계비 유락생계비 비교

소속 금융기관의 유형별 생계비에 대한 결과는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은행권과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와 재무설계회사가 서로 차이가 난다. 실제 평균값으로는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 유락생계비의 기준이 203만원 352만원 602만원으로 4개사의 평균값과 비슷하였지만 각 기관별 응답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은행권과 증권사 종사자의 경우 최저생계비가 230만원~250만원 수준이고 표준생계비가 약 430만원이며 유락생계비의 수준은 750만원~780만원 수준으로 각 계층별 생활비의 격차를 크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 및 재무설계회사 종사자의 경우에는 최저생활비는 60만원~100만원까지 차이가 나며 유락생활비의 경우 280만원~4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대부분 은행권 또는 증권사에서 대부분 VIP 영업을 통한 자산가 그룹과의 접촉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상향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FP 자격증 소유자와 CPF 자격 소유자의 경우만 분석해 본 것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는 평균값과 비슷한 값이 도출되었으나 유락생계비는 490만원~520만원으로 전체 평균값보다 80만원~1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P 자격증 소유자와 CFP 자격소유자의 두 집단 간에서는 생계비의 기준이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값을 가진다. 매월 적정 은퇴 생활비의 경우 200만원 ~ 400만원이 70%로 응답하였는데 결국 이는 생계비 기준에서 최저생계비보다는 많지만 표준생계비에 해당하고 유락생계비에는 해당하지 않는 선을 응답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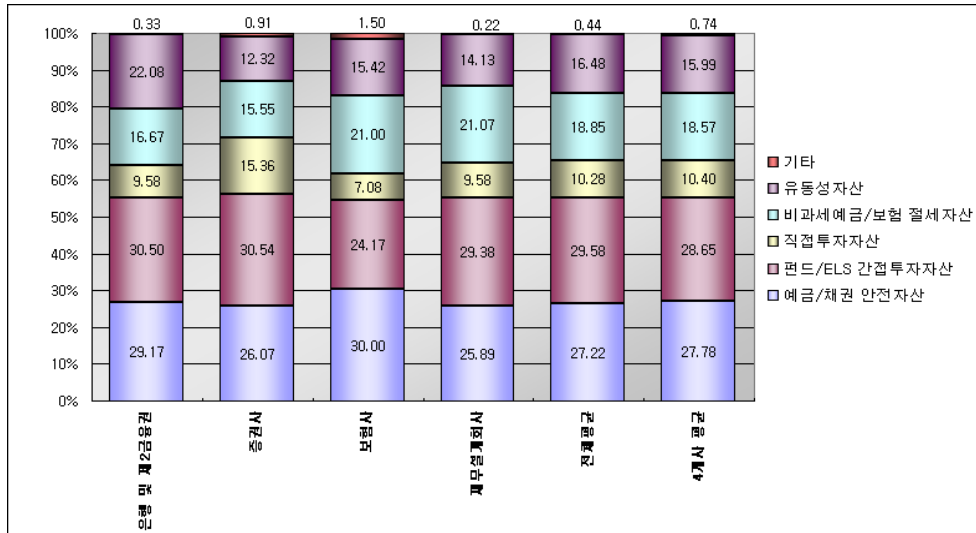


<그림 9> 보유자격증별로 제안한 최저생계비, 표준생계비, 유락생계비 비교

#### <1억 포트폴리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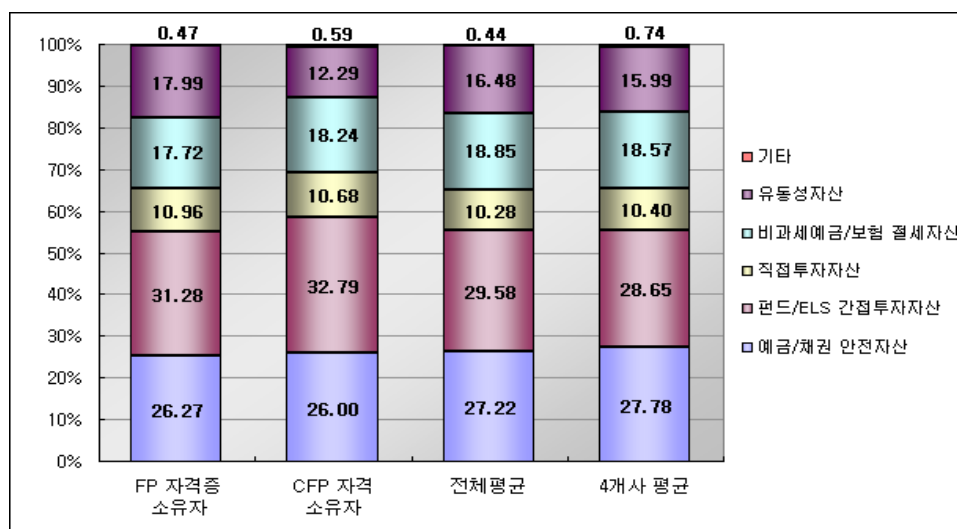
고객의 성향이나 투자목적과는 관계없이 1억의 포트폴리오를 설문한 결과가 <그림 10>과 같이 나타난다. 은행권 종사자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 종사자보다 유동성자산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으며, 증권사 종사자의 경우에는 직접투자자산과 간접투자자산에 45.9%로 다른 업종보다 투자자산의 비중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보험사 종사자의 경우에는 투자자산의 비중이 32.2%로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직종별로 본 1억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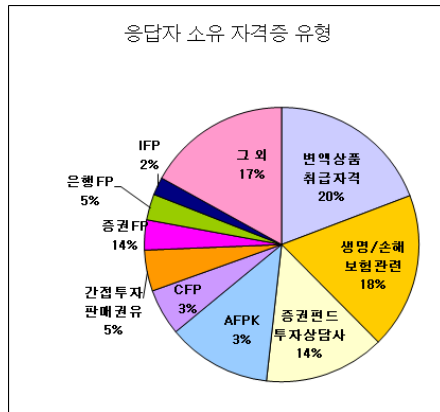
그에 비해 FP 자격증 소유자와 CFP 자격 소유자의 경우를 보면 평균과 비교하여 간접투자자산의 비중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선호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특히 CFP 자격 소유자의 경우에는 안전형 자산 및 유동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대신 간접투자자산으로 더 비중을 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 보유 자격증별로 본 1억 포트폴리오 비교

### <자격증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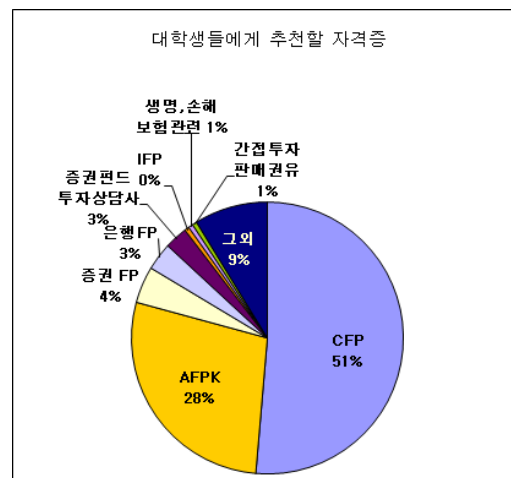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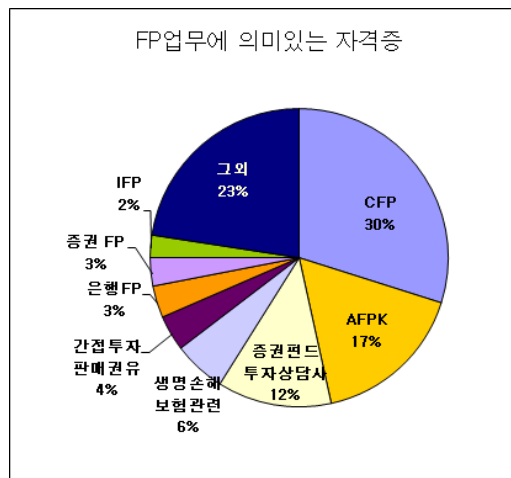
각 전문가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자격증과 함께 추후 재무 설계를 하는 대학생들에게 추천할 자격증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 자격증 종류      |                              | 응답수<br>(중복응답)    |
|-------------|------------------------------|------------------|
| 보험관련<br>자격증 | 변액상품취급자격<br>생명/손해보험관련        | 223개<br>(37.59%) |
| 증권관련<br>자격증 | 증권펀드 투자상담사<br>간접투자판매권유       | 118개<br>(19.03%) |
| FP 자격증      | CFP/ AFPK<br>IFP/ 증권FP/ 은행FP | 164개<br>(26.45%) |
| 기타          | CFA 등                        | 105개<br>(16.94%) |
| 계           |                              | 620개<br>(100%)   |

<그림 12> 응답자 소유자격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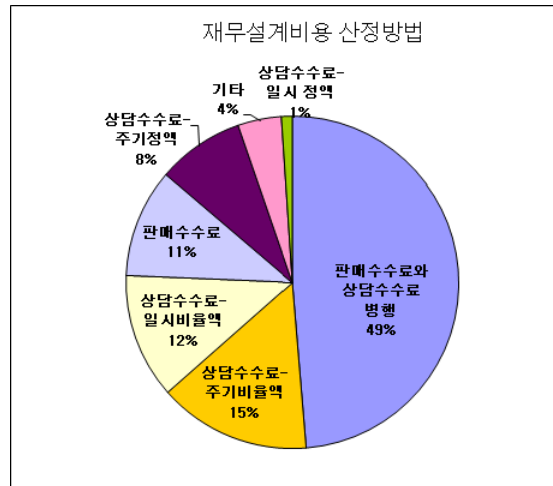
실제 많은 응답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의 종류를 살펴보면 보험에 관련한 상품들이 37.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FP 자격증을 26.45%만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FP업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격증이나 또는 앞으로 FP업무를 하는 대학생들에게 추천할 자격증에 대해서는 FP 업무와 관계된 CFP와 AFPK의 자격증의 비중이 차례로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제 FP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격증으로는 현업에서는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3> FP업무에 의미있는 자격증과 대학생들에게 추천할 자격증

#### <재무설계비용>

마지막으로 재무설계비용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현재 재무설계에 대한 비용이 판매 수수료를 통하여 지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의 재무설계비용을 받는 것에 대해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판매수수료와 상담수수료를 병행하는 방법을 제안한 응답자가 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담수수료-주기비율액이 15%였다.



<그림 14> 재무설계비용 산정 방법

####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재무설계전문가를 대상으로 일반재무지표 및 은퇴관련지표를 제안하도록 하였으며, 그 값을 2003년도 최현자 외가 제시한 지표와 비교해 보았다. 보다 낮은 소비와 높은 저축을 제안하였으며, 총자산대비 높은 금융자산비율과 낮은 실물자산비율을 제안하였다. 현금유동성 비율은 일반적인 이론치인 4~6배에 부합되는 수치가 제시되었다. 아래 표는 본 연구의 결과 중 각 재무비율에 대한 평균값, 4개금융기관 평균값, 중앙값, CFP 및 FP집단의 평균값 등을 참조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표 9> 재무설계전문가에 의해 제안된 재무지표 수치

| 재무비율            |                    | 준거기준   | guideline |
|-----------------|--------------------|--------|-----------|
| <u>지출비율</u>     | 월평균생활비 / 월평균가계소득   | < 90%  | 60%       |
| <u>위험대비 비율</u>  | 월평균보험료 / 월평균가계소득   | < 20%  | 12%       |
| <u>현금유동성 비율</u> | 금융자산 / 평균가계소득      | 1배초과   | 4배        |
| <u>저축비율</u>     | 저축액 / 월평균가계소득      | < 10%  | 30%       |
| <u>부채비율</u>     | 월평균부채상환액 / 월평균가계소득 | < 25%  | 20%       |
| <u>부채비율</u>     | 총부채 / 총자산          | < 80%  | 50%       |
|                 | 총부채 / 금융자산         | 10배 미만 | 4~5배      |
| <u>실물자산 비율</u>  | 실물자산 / 총자산         | < 90%  | 60%       |
| <u>투자자산 비율</u>  | 투자자산 / 총자산         | 5%~10% | 20~25%    |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재무지표들 중 은퇴생활비 대체율이나 노후생활비처럼 일부는 실제 가계지출/소득이나 자산/부채 자료 분석을 통해서 적정값을 제시할 수 있는 지표도 있으며, 실물자산이나 투자자산비율처럼 자산별 수익률을 이용한 시계열 자료분석을 통해 적정포트폴리오를 찾을 수 있는 지표들도 있다. 하지만 많은 지표는 경험이나 때론 가치관에 따라 적정점이 달라진다. 본 연구는 재무설계 전문가로 하여금 그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치를 적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무지표 가이드라인을 산출하였다. 재무설계에 있어서 지표에 의한 가이드라인은 재무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재무지표 가이드라인에 대한 산출과 검증이 계속 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재무설계를 이론적으로 저축비율 + 생활비지출비율 = 100%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그렇지 못하였다. 재무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저축비율 + 생활비지출비율 + 보험비율 = 100%라는 분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학계와 현업이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재무설계 관련 용어의 통일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유락생계비가 600만원이었는데, 생계비를 생활비 지출 부분만을 고려한 것이라면, 유락생계비 사용을 위한 소득은 600만원을 훨씬 웃돌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두 집단 간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용어통일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민정, 최현자,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토", 소비자학연구, 제18권 3호(2007), pp. 87-110.
- 여윤경, "한국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한국노년학, 제 25권 1호(2005), pp. 21-36.
- 이선형, "노인부부가계를 위한 생계비 산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14권 1호(2003), pp. 98~121.
- 이철용, "노후자금 4·5억이면 충분하다", LG주간경제, 제 871호(2006), pp. 8-14.
- 전승훈, "은퇴결정 및 은퇴후 소비와 소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석재은,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 필요소득수준연구", 한국인구학, 제26권 1호(2003), pp. 79-113.
- 허경옥, 한수진, "재무비율을 이용한 소득계층별 가계재무구조 분석", 한국생활과학회, 제 14권 4호(2005), pp. 613-630.
- "대한민국 상류사회 부는 윤3 노력7", 매일경제 2008년 3월 24일.
- "펀드포트폴리오 새해조정해야 할까요", 동아일보 2008년 12월 29일.
- "부동산 편식에서 벗어나 금융자산 투자 비중을 늘리세요", 중앙일보 2009년 10월 13일.